

생산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관리업무 振興會로 이관

— 振興會 · 韓電 협약서 체결 —

重電機器 제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기술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된 生産技術 發展 5個年 計劃에 의거 지난 1991년부터 重電機器 업체에 지원된 R&D 자금중 상환되는 기술료 500億원이 電機振興會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管理業務를 振興會에서 수행하게 된다.

振興會와 韓國電力公社는 최근 생산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통해 “생산기술 개발사업 운용 및 관리기준”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소관업무를 振興會로 이관토록 결정하고 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조성 및 운영·관리와 관련한 협약서를 정식 체결하였다.

이번 결정에 따라 기술개발을 완료한 과제에 대한 최종 평가후의 관리업무를 진흥회가 수행하게 되며 업체의 기술료 상환 또한 진흥회로 납부토록 함에 따라 진흥회에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잠식 없이 회전기금화하여 중전기기업계의 기술개발기금으로 운영하게 된다.

생산기술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원된 실적을 보면 총 188개 과제에 참여업체는 172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약 1,000억원의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진흥회에서는 앞으로 조성될 기술개발 기금의 투자효율 극대화와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“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운용 요령”을 제정하고 “중전기 기술개발기금 운용 심의회”를 구성하는 등 기금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동남아시아 電機工業 동향 조사

— 태국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 등 —

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최근 전원개발 계획에 따라 重電機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의 電機工業 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.

이번 조사는 동남아 각국이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기 위한 전원개발 확충 계획을 수립, 이와 관련된 전력기자재 등 전력설비 수출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국내 重電機器 수출도 매년 30%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국내 중전업계의 관심이 어느 지역 보다도 크고 고조되고 있어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重電業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시장 개척의 활로를 모색하는 자료로 이용토록 하기 위해 실시케 된 것이다.

振興會에서는 태국·싱가폴·인도네시아·말레이시아·필리핀등 동남아 5개국의 발전기, 전동기, 변압기, 변환장치, 개폐기, 차단기, 배전제어장치, 전선등 주요 重電機器의 수요동향, 경쟁동향, 진출방안 및 전기관련 국영기업과 단체, 바이어 리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단행본의 “동남아 전기공업 동향 및 진출방안”자료를 발간, 회원사 및 관련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다.

振興會에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하여 오는 10월말경 필리핀·스리랑카·인도·인도네시아 등에 전기공업 수출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시장조사 및 수출상담 개최, 관련기관 및 구매기관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다.

한편, 진흥회는 1994년 “서남아 전기공업시장 동향”을 조사 발간한데 이어 올 연말에는 중국, 대만, 러시아, 일본 등 “동북아 전기공업시장 동향” 조사 사업도 실시하는 등 중전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